

태권브이랜드 사업 계속 추진돼야

무주읍 발전회 등 11개 무주군 사회단체 입장발표

무주 향토산에 조성하려던 태권브이랜드 사업에 대한 무주군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해 무주읍 일부 사회단체가 반발하며 나섰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업 전면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포명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무주읍 발전회를 포함한 11개 무주읍 사회단체가 18일 무주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의 적극 찬성'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무주 읍내리와 오산리(향토산자연휴양림) 일원에 72억여 원을 투입해 로프트태권브이조형물전망대와 스카이워크, 경관조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참석한 11개 단체는 "이 사업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무주와 지역주민이 함께 성장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추진해야 한다"며 "폭넓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11개 무주읍 사회단체가 18일 무주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업의 계속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무주군과 주민이 상호협력 및 상생하는 관계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군민은 선제적이고 공격적이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태권브이랜드 사업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군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산림재해 고민 이제 그만!

진안군, 산림 패트론팀 민원 신속대응

진안군은 주택, 농경지, 도로변 등 생활권 수목에 의한 산림재해로부터 적극적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패트론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산림 패트론팀은 크레인, 굴삭기 등 각종 산림관련 장비를 이용하여 강풍 시 주택으로의 도복 위험목, 농사에 피해를 주는 지장목, 차량 및 통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고사목 등의 제거를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총 182개소 주택과 도로변 등의 위험목 390주를 제거하였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125개소 356주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능

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위험목으로 잘려진 나무는 수집 후 적당한 크기로 조재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30가구에 총 60톤을 뺐감으로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00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 산림 패트론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안군 산림과 경관녹지팀(063-430-2442, 8688)이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수목제거 대상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 후 신속 처리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 아 리

뽕배이 이상용의 명품강의 성료

산서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산서초등학교 영대관에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라는 주제로 뽕배이 이상용의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주민 500여명이 참석하여 영남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용은 40여 년간 왕성한 연예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92억원을 심장병 어린이들과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비 등에 기부하며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온 자신과 가족들의 일상을 소개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나눔을 통해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웃으면서 건강하게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을 특유의 구수한 어투와 재치 있는 유머로 전달하여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규성 주민자치위원장과 김경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장은 "뽕배이 이상용의 명품인생과 특급강연이 바른 일상에 지친 산서면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장관상

진안군치매안심센터가 18일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에서 개최한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2019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개인별 인지능력에 맞게 총 3가지 형태의 맞춤형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게 평가 받았다.

치매예방과 치매악화 방지를 위해 치매전담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치매 발생 위험 요인과 위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초기치매 전 단계인 인지 저하자를 위한 찾아가는 인지강화교실 △초기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 △일

반인을 위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쉼터 프로그램은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머물지 않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씩 3개월 동안 운영하여 총 56명이 수료를 마쳤으며, 현재 4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특히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주보호자와 가족의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 돌봄 부담을 줄이는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헤어링 교실'을 매주 월요일마다 운영하여 현재 348명의 가족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개별공시지가 23일까지 열람기간 운영

무주군은 개별공시지가(2019. 7. 1. 기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이달 23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으로 열람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1,510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 별 m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중 개별지가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무주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표준지 등의 토지특성 재검증과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내용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자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 총력

17일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48시간 외부 통제... 방역 돌입

진안군 진안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17일 경기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돼지 관련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이며, 48시간 동안 외부 유입을 통제한다.

또한 진안을 단양리에 운영 중인 상시 거점소독 세척시설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성수면에 거점소독 세척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18일부터 2개소를 운영한다.

공동방제단 3개반을 동원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양돈 농가의 소독 독려를 위해 소독약 1,000kg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양돈농가 전담공무원제 운영을 통해 의심축 발생과 소독 실시 여부 등을 파악하는 예찰·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 파주 양돈농가로부터 돼지 유입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ASF 유입 차단 방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수군은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하여 위기단계가 심각상태가 됨에 따라 양돈농장 관련 시설차량 등에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48시간) 일시이동중지를 명령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6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양돈 전문가에 소독약품 805kg, 생석회 26,800kg, 야생멧돼지 기피제 268kg을 무상으로 기배부했다.

그리고 추석 전·후 양돈농가가 자체 보유한 소독장비를 이용해 소독 할 수 있도록 "양돈농장 일제소독 및 청소 캠페인"을 실시했고, 시외버스 터미널 등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양돈농가 및 주변 도로변은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소독함으로써 사전 오염원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장계면) 1개소를 17일부터 설치·운영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